금속노조통신 71호

▣발행일 : 2020년 11월 19일(목) ▣발행인 : 김호규 ▣발행처 : 노조선전홍보실 ▣스마트폰 m.ilabor.org / ▣전화 : 02-2670-9507

“우리가 모두 김진숙이 되자”

‘해고 없는 세상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열어 … “작업복 입고 현장에서 퇴임하도록 투쟁”

“세상이 변하고 있지만, 김진숙 동지는 35년 전 그대로 해고자인 채로 있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에 항암전까지 이겨냈다고 이야기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또다시 고통을 겪고 있어 억장이 무너집니다.” 심진호 한진중공업지회장은 울분을 토했다.

심진호 지회장은 “이제 한진중공업지회가 또 다른 김진숙이 되겠습니다. 35년을 힘없는 노동자와 약자들을 위해 싸워 온 김진숙 동지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김진숙이 되어 복직 투쟁에 나섭시다” 라고 호소했다.

금속노조가 11월 18일 오후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정문 앞에서 ‘작업복의 꿈, 복직의 희망, 해고 없는 세상, 김진숙과 함께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로 김진숙 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복직 투쟁이 149일째를 맞았다.

김용화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우리 노동운동은 김진숙 동지에게 진 빚이 많다” 라며 “2011년 1월 6일 85호 크레인에서 309일간 고공농성으로 동지들의 정리해고를 막아냈다. 희망버스는 노동운동의 희망이 됐고, 다시 민주노총의 깃발을 들고 금속노조의 이름으로 거리로 나서게 된 원동력이 됐다” 라고 정의했다.

김용화 수석은 “김진숙 동지의 복직은 작업복의 꿈, 해고 없는 세상을 향한 정의로운 법이 될 것” 이라며 “금속노조는 정의로운 투쟁에 언제나 선봉에 섰다. 11월 25일 주야 2시간 이상 총파업으로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을 치고 나가겠다” 라고 강조했다.

“몸 상태 급격히 나빠져”

이날 김진숙과 함께하는 결의대회에 김진숙 조합원은 함께하지 못했다. 암이 재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1월 13일 출근 선전전을 하던 김진숙 동지는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출근 선전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14일부터 출근 선전에 나오지 못했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한진중공업 영도 조선소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결의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김진숙 조합원은 조선소 해고자 변주현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에게 편지글을 썼다. 이 편지글은 정혜금 금속노조 부양지부 사무국장이 대독했다.

김진숙 조합원은 편지글에 “내가 26, 주현 씨가 27세. 조선소 용접공. (중략) 주현 씨, 투쟁도 좋지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따뜻한 데서 자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들으면서 살아.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도 하고. 아파서 중요한 투쟁 앞에 할 일을 못 하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주현 씨는 건강하게 싸워라. 서진 투쟁에 함께 연대하지 못해 미안해. 같은 꿈 꾸는 동지야. 꼭 복직하길 바래” 라고 따뜻하고 절절한 마음을 담았다.

조선업종노조연대 공동 의장인 조경근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35년 동안 민주노조를 위해 독재정권에 맞서 온몸이 부서져라 싸웠지만, 정작 자신의 복직을 위해서 한 번도 싸우지 않았던 김진숙 동지” 라며 “반드시 35년 전 모습인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서 정년퇴임을 할 수 있도록 힘차게 싸우자” 라고 호소했다.

김영삼 대우버스지회 조합원과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의 투쟁사가 이어졌고, 현대자동차지부의 투쟁기금 전달, 문선대의 공연 등이 뒤따랐다.

결의대회를 마무리하며 김진숙 조합원의 복직을 염원하는 ‘희망배’가 대오 뒤편에서 무대로 향했고, 대회 참가 노동자들은 하늘색 풍선에 ‘해고 없는 세상’ 이라고 써서 배 안으로 던져 넣었다.

“교섭창구단일화, 설계부터 노조파괴용. 폐기해야”

제도 도입 10년 실태·개선 방향 토론회 … “노동부 문제없다 하니, 사용자 맘껏 노조파괴”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시행 10년. 민주노총이 노조파괴 악법으로 산업현장에 자리잡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를 요구하며 대안 모색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11월 17일 오후 국회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도입 10년 문제 실태와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콘티넨탈지회, AVO카본코리아지회, 삼우기업지회, 효림산업분회 등 창구단일화 피해사업장 노동자들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발제를 맡은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는 “10년 동안 제도 시행 결과를 보면, 노조 무력화와 노조파괴를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한 셈이다”라며 “산별교섭을 무력화하고 기업별 교섭 고착을 노린 교섭창구단일화는 폐기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박주영 노무사에 따르면 2011년 7월 1일 교섭창구단일화 시행 이후 10개월 만에 관련 사건 4백여 건이 노동위원회에 접수됐다. 제도 도입 10년이 되도록 안정되긴커녕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둘러싼 노사갈등과 노조탄압 사례는 늘어났다. 지난 2019년 노동위원회로 755개 사건이 새로 들어왔다.

박주영 노무사는 “교섭창구단일화라는 위헌적이고 불필요한 제도 탓에 노와 사는 단체교섭을 시작하기 전부터 상당한 진통을 겪는다”라며 “교섭대표권을 얻거나 잃은 뒤에도 공정대표의무 이행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된다”라고 설명했다.

“노조파괴용 어용노조 설립, 범죄단체 구성죄로 처벌”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대안은 무엇일까. 박주영 노무사는 초기업단위 교섭구조를 복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구조와 노동환경이 다변화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조직형태에 따른 다양한 교섭구조를 보장해야 한다. 교섭구조에 따른 단체교섭 대상과 범위의 확대·유연화도 필요하다.

복수노조를 앞세운 부당노동행위도 규제해야 한다. 박주영 노무사는 노조파괴 목적의 어용노조 설립은 범죄단체 구성에 따르는 범죄로 보고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민주노총이 교섭창구단일화 법 통과 당시와 시행 초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시행 10년을 맞아 과연 고쳐쓰기가 가능한 제도인지 본격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권오성 교수는 “현행 개별교섭 동의방식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교섭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노사관계 불안을 촉발했다”라며 “결국 노사관계를 자주·집단의 자치가 아닌 법원 판결 등 국가 공권력에 의존, 종속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라고 지적했다.

노동부, “잘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

권오성 교수는 교섭창구단일화 폐지를 주문했다. 권 교수는 “애초 잘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며 “지난 10년 교섭창구단일화가 만든 해악이 너무 많다. ‘고쳐쓰기’가 아닌 폐기가 맞다”라고 강조했다.

정부 쪽은 교섭창구단일화가 안착화됐다고 평가하며 민주노총의 폐기 주장에 이견을 보였다.

김수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교섭창구단일화는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단체교섭과 노사갈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만든 제도”라며 “민주노총 주장과 달리 교섭창구단일화는 10년 시행 결과 현장에서 상당 부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본다”라고 긍정 평가했다.

김수진 과장은 “자율교섭이 단체교섭권과 노동기본권을 더 보장해준다고 볼 근거가 없다. 노사관계가 복잡한데 무작정 개별교섭이 이뤄지면 신규사업장이나 소수노조 교섭력은 오히려 약화할 것”이라며 “제도 폐기만이 방법이냐. 개별교섭하면 노사갈등이 해결되냐”라고 반문했다.

토론회를 참관한 조남덕 노조 콘티넨탈지회장은 “사측은 금속노조가 다수일 때 개별교섭을 하더니, 금속노조를 탄압해 기업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만든 다음 ‘이제 금속노조 만날 일도, 찾아올 일도 없다’라고 말했다”라며 “실제 금속노조는 소수노조가 된 다음 사측 거부로 노사교섭을 한 차례도 못했다”라고 증언했다.

조남덕 지회장은 “교섭창구단일화 때문에 피해당하고 고통받은 노동자들 사례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노동부 관계자가 제도 안착을 얘기하니 기가 막힌다”라며 “노동부가 안일한 인식과 태도를 보이니 사용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복수노조 앞세워 노조파괴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